

# 백종원과 손잡은 LGU+, '골목 요식업 사장님' 지원 박차



요식업 소상공인 패키지 선포  
매장 경영 백종원 노하우 담아  
인터넷전화·지능형CCTV 선택  
세무·렌탈·구인 등 9종 솔루션

LG유플러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요식업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내놨다. 이 사업을 통해 올해 800~900억원 매출을 거둔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1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요식업 특화 소상공인 대상 패키지인 'U+우리가게패키지'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맞춤형 통신 상품과 사업 운영 지원 솔루션을 통해 소상공인 성공을 돕고, B2B(기업간) 영역 매출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소상공인 상품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이 서비스를 기획해왔다.

요식업은 전체 소상공인 업종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 업종이지만,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10~20% 줄어드는 등 위기를 맞았다.

김현민 LG유플러스 기업 소호 사업 담당은 "330만명 이상 소상공인이 요식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만 14만명이 창업해 종사자들은 늘고 있지만 외식 수요가 감소해 매출이 줄고 있다"며 "특히, 매장에서 코로나19로 방역에 신경을 쓰고, 배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포장, 배달 앱 관리 업



13일 오전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진행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김현민 담당, 임장혁 그룹장, 권지현 팀장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무까지 사장님이 혼자서 감당하기에 버거운 수준이어서 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요식업 분야 선도 사업자인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와 협업체 실제 사장님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를 발굴해 패키지 상품에 반영했다. 요식업 특화 전략을 통해 전년 대비 40% 이상 신규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임장혁 LG유플러스 기업기반사업 그룹장은 "향후 요식업에 이어 매장 기반 소매업, 오피스형사업자 등으로 특화 상품을 확대할 것"이라며 "업계 선도 업체들과 제휴를 확대해 소상공인들에게 진정성 있는 상품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제안심인터넷 만 가입해도 제휴 솔루션 9종이 무료

'U+우리가게패키지'는 결제안심인터넷을 기본으로, 인터넷전화와 지능형 CCTV 등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LG유플러스는 소상공인들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장 경영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패키지에 추가했다. 소상공인은 월 2만5300원(100M 기준)을 부담하는 결제안심인터넷만 가입해도 총 9종 솔루션을 최대 12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세무, 회계, 구인, 렌탈, 금융 등 선도 사업자들과 제휴를 체결했다.

LG유플러스는 또 원격으로 주방 청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매장안심형 CCTV'도 선보였다. 360도 상하좌우 조절이 가능한 특수 카메라와 최대 5배 줌이 가능한 가변초점 카메라를 통해 사각지대 없이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김현민 소호사업 담당은 "매장 청결 상태를 구성구석 확인할 수 있으며, 5배 줌 기능을 통해 음식 조리 후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고객들도 위생에 민감한 만큼 향후 고객이 직접 매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직원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이용약관을 변경하고 홈페이지 상 매장 안심형 CCTV 운영사실을 공개하는 등 이슈를 먼저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사각지대 없는 '매장안심형 CCTV' 더본코리아·도미노피자 첫 도입

더본코리아는 전국 270개 매장에 '매장안심형 CCTV'를 설치한다. 각 매장의 영상은 점주와 본사에서 각각 확인이 가능하다. 도미노피자에도 매장안심형 CCTV가 도입된다. 도미노피자는 108개 매장에 가변초점 카메라를 도입한다. 피자를 박스에 포장하기 전 완성된 모습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고객이 주문한 피자가 레시피 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특수카메라 1대당 월 1만3200원에 매장안심형 CCTV를 이용할 수 있다. 총 8대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촬영된 영상은 모바일 앱과 PC 프로그램을 통해 원격 확인 및 컨트롤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선택 상품인 인터넷전화도 개선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전화를 받는 건수가 많다는 점에 착안, 통화연결음·발신자표시·착신전화 등 3종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QR코드를 등록하기 위해 줄을 서는 등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화 한통으로 해결하는 080 방문출입관리 서비스도 무료 공급한다.

/채윤정 AI 전문가 echo@metroseoul.co.kr

## 네이버클라우드 '백신 모바일' 글로벌 테스트기관 인증 획득

'네이버백신 모바일'이 글로벌 테스트기관에서 진행된 평가에서 안드로이드 안티바이러스 부문 인증을 받았다.

네이버클라우드의 모바일 보안 솔루션 '네이버백신 모바일'이 글로벌 보안 제품 성능 테스트 기관 'AV-TEST'가 지난 5월 실시한 안드로이드용 안티바이러스 부문에 높은 점수로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네이버백신 모바일은 2020년부터 AV-TEST 인증 심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올해 5월 테스트 결과, 무료백신으로는 글로벌 톱 유료 백신과 견주어도 부족함 없는 품질을 입증했다. 특히 멀웨어(악성 소프트웨어) 공격에 대한 실시간 탐지율은 99.3%, 최근 4주 이내 전체 멀웨어 탐지율은 99.0%로 업계 평균을 상회했다.

/강준혁 수습기자 junhyuk@

## ADT캡스

### 보안앱 '캡스 모바일 가드'

ADT캡스는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모바일 보안 앱인 '캡스 모바일가드'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캡스 모바일가드는 SK텔레콤 사용자를 위한 무료 모바일 백신 'T가드'를 ADT캡스가 맡아 새롭게 리브랜딩한 것으로, 이를 통해 ADT캡스는 국내 1위 정보보안 사업 역량을 모바일 보안까지 확대하게 됐다.

캡스 모바일가드는 악성코드, 스미싱 등 스마트폰에 대한 각종 위협을 실시간 감지하고 통합 관리하는 안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 내 악성 앱 검사, 금융정보 유출을 유도하는 악성 URL인 스미싱 검사 등 핵심 보안 기능은 물론, 불필요한 파일 정리를 통한 스마트폰 저장공간 최적화 기능도 제공한다.

/강준혁 수습기자

## SKT, 구독형 AI 스마트공장 만든다

성신컴프레사·솔텍시스템과 맞춘 AI·클라우드 컴프레서 관리

제조업 전반 공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컴프레서(압축기)를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공장 인공지능(AI) 구독형 서비스가 등장했다.

SK텔레콤은 성신컴프레사, 솔텍시스템과 함께 스마트 컴프레서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2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3개사는 컴프레서 도입 공장들의 운영 및 유지 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SKT SMS 스마트 컴프레서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12일 체결했다. (왼쪽부터) 솔텍시스템 문병선 대표, SKT 최낙훈 스마트 팩토리 CO장, 성신컴프레사 김인기 기술사. /SKT

애로사항을 AI와 클라우드 기술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 협력을 추진했으

며, 이는 SKT의 클라우드 기반 AI 스마트 공장 서비스인 '그랜드뷰'를 출시한 이후 첫 상용화 사례다.

SKT는 '그랜드뷰' 솔루션을 성신컴프레사에서 제작한 컴프레서에 커스터마이징해 제공하며 9월 출시할 예정이다. 솔텍시스템은 컴프레서의 설비데이터 수집을 위한 IoT(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제작한다.

컴프레서는 전기모터나 터빈 등 동력 발생 장치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공기, 냉매, 특수 가스에 압축을 가해 작동가스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여주는 기계로 공장의 제조 공정 전반에

널리 사용된다. 성신컴프레사는 국내에서 연간 7~800대의 컴프레서를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

성신컴프레사는 '그랜드뷰'에 AI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컴프레서를 통해 ▲설비 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의 이상치 및 고장 전조의 일람 ▲원격 제어 ▲AI기반 예지정비(설비상태 정량적 파악)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 운영 인력 및 유지 보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적용되는 컴프레서 전용 '그랜드뷰'는 월 구독형 서비스 모델로 출시한다. '그랜드뷰'를 구독형으로 도입한 공장은 초기 구축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채윤정 AI 전문가

## KT, 수원 위즈파크서 '28GHz 5G' 실증

선수와 홀로그램 팬미팅 등 12가지 체험형 서비스 구축

KT는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28GHz 5G 실증 서비스를 선보인다.

13일 KT에 따르면 KT위즈파크내에 28GHz 5G 체험관과 스카이박스에서 총 12가지 체험형 서비스를 구축했으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및 KBO 프로리그 중단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영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진행하는 28GHz 시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체험관에는 ▲실시간 홀로그램 팬미팅 ▲28GHz 단말 기반의 메타버스 서비스 및 클라우드 게임 ▲리얼뷰 양방향 게임 등이 마련됐다. 강백호 선수, 황재균 선수 등 kt wiz의 대표

선수들 및 김주일 응원단장과 실시간 양방향 홀로그램 팬미팅도 구현했다. 또 나만의 아바타캐릭터를 통해 불펜(구원투수가 경기전 준비운동 하는 곳)과 선수 락커룸을 가상현실(메타버스)로 체험하는 서비스도 준비했다.

스카이박스 구간에는 인공지능(AI) 로봇이 엘리베이터에서 지정 스카이박스까지 안내한다.

당초 이 서비스 시연은 13일부터 15일까지 수원 KT위즈파크를 찾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었

으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및 KBO 프로리그 중단에 따라 동영상으로 제작 및 KT위즈, KT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소개된다. KT는 이번주 중 영상 제작을 완료하고 오는 19일부터 해당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 KT는 오는 9월 목동에 위치한 클래식 공연장 체험버들과 10월 수원 철보체육관에도 28GHz 실증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채윤정 AI 전문가

## 'AI 전화 비토' 리턴제로

### 160억 시리즈B 투자 유치

인공지능(AI) 전화 앱 '비토(VITO)'가 160억원의 규모급 투자를 유치했다.

AI 전화 비토를 운영 중인 음성인식 스타트업 리턴제로는 KTB네트워크,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하나벤처스,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엔젤투자자로부터 160억원의 시리즈B 투자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리턴제로는 총 198억원에 달하는 누적 투자를 기록하게 됐다.

리턴제로는 이침술 대표, 정주영 최고기술책임자, 이현중 개발팀장 등 한국과학기술원(KAIST) 동기이자 카카오 초기 멤버 3명이 모여 2018년에 공동 창업한 기업으로, 비토를 통해 통화 녹음을 문자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전화 목소리를 텍스트로 변환해 채팅처럼 보여주는 비토는 투자 심사 과정에서 뛰어난 음성 AI 기술력과 함께 '다양한 음성 인식엔진 중 한국어 음성인식이 가장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냈다. 올 3분기 내에는 중국 시장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히는 등 글로벌 무대로의 연을 확장할 계획이다.

/채윤정 AI 전문가